

한국 사회에서 발레는 어떻게 읽히는가

- 국내 발레 단행본으로 본 출판과 담론의 변화 -

한지영*

I. 서론

II. 출판 현황 분석

III. 담론적 특성 분석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962년, 범문사에서 임을파의 『발레』가 출간되었다. 같은 해 국립발레단(국립무용단)이 창단되며 한국 발레사의 원년으로 기록되는 이 시점에, 발레는 이미 하나의 ‘읽어야 할 지식’으로 국내 독자 앞에 놓여 있었다. 이후 6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발레는 전문 무용 단체의 공연예술을 넘어, 아파트 상가마다 들어선 발레학원과 수만 명이 모인 취미발레인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서점 매대를 채우는 실용서와 에세이를 통해 일상의 문화 코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공연·교육·제도적 차원의 발전에 비해, 발레에 관한 지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유통·소비되어 왔는지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러한 학술적 공백은 본 연구자 개인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본 연구자는 무용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국내 발레·무용 서적이 전문적인 이론서와 기능 중심의 실용서라는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마저도 상당수가 절판되어 손에 넣기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후 본 연구자가 직접 단행본을 기획·출간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출판사와 협업하며 독자의 수요와 시장의 반응을 가늠하는 실무를 경험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레가 하나의 텍스트이자 상품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유통·소비되는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두 권의 저작을 출간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본 연구자가 체감한 출판 시장의 변화는 독자층의 확장, 장르적 경계의 이동, 발레 콘텐츠에 대한 수요의 성격 변화였다. 특히 발레 지식의 장르와 전달 방식이 만화·일러스트 에세이, QR코드를 통한 영상·음원 연동 등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감지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단행본은 특정 시대의 지식 체계와 문화적 인식론을 반영하는 핵심 자료이다. 교육 정책 및 문화적 맥락 연구에서 단행본이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은, 단행본이 학술논문과는 달리 저자의 경험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강사, gks09271@naver.com

과 통찰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대중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Baker, D. P., & LeTendre, G. K., 2005; Rizvi, F., & Lingard, B., 2010). 특히 단행본은 특정 국가의 교육 시스템이나 사회 구조와 같은 복합적 주제를 폭넓게 전달하는 매체로서(김영환, 2025, p. 46), 특정 사회가 어떤 지식을 어떻게 구성하고 수용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효한 분석 대상이 된다. 실제로 발레가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한 1920~1940년대에는 발레가 오락물이자 대중문화, 그리고 고급문화라는 상이한 위치로 동시에 인식되었다는 연구 결과(박은혜, 2018b, pp. 15-32)는, 발레의 사회적 위상이 시기에 따라 재구성되어 온 것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출판 담론 역시 이러한 발레 수용사의 역사적 유동성이 출판이라는 매체를 통해 발현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 무용학 연구는 공연·교육·치료 등의 실천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출판물을 통한 지식 생산 및 문화 담론 연구는 상대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다. 무용 관련 단행본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로는 유화정(2017)의 연구가 선구적이다. 유화정은 한국무용사 관련 단행본의 출판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시대 구분 및 용어 사용에 관한 저자의 명확한 기준 명시와 필요성, 다양한 분야의 방법론과 관점을 도입한 융합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비교적 소외된 무용 유형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무용 관련 출판물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로서 본 연구의 방법론적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유화정의 연구가 한국무용사 분야에 한정된 반면, 본 연구는 서구에서 이식된 예술 장르인 발레에 주목함으로써, 외래 예술 형식이 국내 출판 담론을 통해 어떻게 재맥락화 혹은 대중화되었는가에 대한 별도의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아울러 발레 단행본만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연구, 특히 출판 시장을 기반으로 한 분석은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간된 발레 관련 단행본을 수집·분류·분석함으로써, 출판 동향의 흐름과 그 안에 내재된 발레 문화 담론의 역사적 맥락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행본 분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시대별 교육 및 문화 담론의 변천 양상을 추적할 수 있다. 둘째, 발레 지식의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저자·출판사·독자층 등 출판 주체 간의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발레 관련 단행본을 분석하는 작업은 단순한 내용 이해를 넘어, 한국 사회가 발레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해 왔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접근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서면 인터뷰를 병행하는 혼합 연구방법을 채택한다. 분석 대상은 국내에서 발행된 발레 관련 단행본으로, 최초 확인된 발행 연도인 1962년부터 2026년 3월까지를 수집 범위로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다음의 절차를 따랐다. 우선 대형 서점 홈페이지에서 ‘발레’를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2026년 4월 12일 기준, 알라딘에서는 국내도서 700권과 전자책 168권, 교보문고에서는 국내도서 10,101권과 전자책 202권, 국회도서관에서는 일반도서 189권과 전자책 6권이 검색되었다. 각 단계에서의 정확한 제외·추가 건수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으나, 배제 대상은 다음 네 범주, 즉 1) 중복 검색 결과, 저자명 또는 출판사명에 ‘발레’가 포함되었으나 실제로는 무용예술과 무관한 도서(예: ‘발레리’ 등 인명에 ‘발레’가 포함된 경우), 2) 피아노 연주곡집, 3) 발레 대본, 4) 절반 이상이 타 장르 무용으로 구성된 이론서에 한정되었다. 이후 국립중앙도서관 및 RISS에서 교차 검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초창기 도서를 발굴하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조사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는 1963년 국내 최초로 대학교 무용학과를 설립한 기관으로, 발레 관련 초기 출판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었다. 실제로 본 조사를 통해 1960~80년

대 발행된 초기 도서를 추가로 발굴한 결과 최종 257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257권은 실용취미(사전·매뉴얼 포함), 예술인문(역사·비평·이론), 에세이(평전 포함), 문학, 어린이, 기타(사진집·만화)의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 분류는 국제표준도서분류(UDC)나 듀이십진분류법(DDC), 혹은 이를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한 한국십진분류법(KDC)을 따르지 않았다. 이는 KDC상 무용·발레 관련 도서 전체가 단일 코드(685)로 통합되어 있어, 본 연구가 주목하는 서술 방식과 독자층에 따른 세분화된 구분(실용취미, 예술인문, 에세이, 문학, 어린이, 기타)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서점 역시 KDC 코드 대신 독자적인 마케팅 분류 체계(예: ‘무용일반/교양’)를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서점의 실무적 분류 관행과 연구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인 유형 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도서에 대해 출판 연도, 저자의 무용 전공 여부, 번역서·국내도서 구분, 출판 현황(종이책·ebook·절판 여부) 등의 서지 정보를 코딩하여 분석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서면 인터뷰는 2026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응답자는 북피움 편집장, 동글디자인 대표(현호영, 동글디자인은 해당 출판그룹이 운영하는 복수의 임프린트 중 하나이다), 플로어웍스 대표(1인 출판사 운영자)로, 각 출판사의 발레 도서 기획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로 선정하였다. 질문지는 출판 기획의 배경, 도서 선정 기준 및 번역·용어 원칙, 독자층 분석, 향후 출판 방향이라는 네 개의 공통 주제 영역으로 구성되, 각 출판사의 개별 출판 이력(예: 저자 중목 출간, 특정 시기 집중 출판 등)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수집된 응답은 공통 질문 영역을 중심으로 1차 분류한 뒤,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담론적 특성과 관련성에 따라 재분류하여 III장의 각 절에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설계에서 II장의 계량 분석은 국내 발레 단행본의 출판 현황과 구조적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III장의 담론 분석은 이러한 변화가 발레 지식의 생산과 유통, 수용 과정에서 어떠한 문화적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해석하는 단계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양적 변화의 확인과 질적 의미의 해석을 상호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발레 단행본의 출판 현황은 어떠하며, 시기별로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단행본의 유형(실용취미·예술인문·에세이·문학·어린이·기타)별 분포와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단행본에 내재된 발레 문화 담론은 어떤 역사적·사회적 맥락 위에서 형성·변화해 왔는가?

문헌 분석에서 수집된 257권의 서지 정보를 대상으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에 기반한 계량적 서지분석을 실시하여 출판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도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담론적 특성을 도출한다. 계량 분석에서는 연도별·유형별·번역서 비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였다. 자료의 코딩과 빈도 및 비율 산출에는 Microsoft Excel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도서 제목을 대상으로 제목 키워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김영환(2025)이 단행본 제목을 분석 단위로 삼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적용한 방법론을 참조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시각화 대신 의미적 유사성에 따른 수동 클러스터링 방식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제목에서 주요 어휘를 추출하고, 인물·정체성, 역사·이론, 신체·실용, 용어·사전, 꿈·성장, 감성·예술의 여섯 범주로 분류한 뒤, 각 범주 내 세부 어휘를 열여섯 개의 클러스터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발레리나·무용수·무용가’는 인물·정체성 범주에, ‘역사·현대/모던·러시아/소련·클래식·고전’은 역사·이론 범주에, ‘스트레칭/운동·다이어트/피트니스·해부/재활’은 신체·실용 범주에 포함하였다. 빈도 산출은 각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어휘가 제목에 문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으며, 하나의 제목이 복수의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경우 각 클러스터에 중복 집계하였다. 장르 분류의 주관성과 마찬가지로, 열여섯 개 클러스터를 여섯 범주로 묶는 상위 분류 체계 역시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이 분석은 II장의 서지 계량 분석을 보완하는 예비적 담론 분석으로서, III장의 장르별 담론 특성 해석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내용 분석에서는 저자 구성의 변화, 서술 방식의 전환, 장르 간 지식 형식의 혼종화, 아동 대상 출판물의 문화 코드 재생산, 용어 사용의 표준화 여부 등을 검토한다. 서면 인터뷰는 국내 발레 출판을 주도하고 있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2018년 이후 발레 관련 도서를 가장 활발하게 출판해 온 동글디자인, 2020~2022년 집중적으로 발레 도서를 출판한 플로어웍스, 2024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레 도서를 출판하고 있는 북피움으로 선정하였다. 세 출판사는 각기 다른 시기 국내 발레 출판 시장을 이끌어온 주요 행위자에 해당한다. 인터뷰는 출판 기획의 배경과 도서 선정 기준, 독자층 인식, 번역 방식, 시장 전망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III장의 담론 분석 절 구성에 따라 주제별로 재배치하여 인용하였다. 이를 통해 출판 동향과 담론 변화 간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분석 대상이 국내에서 발행된 도서에 한정되어 있어, 해외에서 출판된 한국어판 도서나 재외 한인 출판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본 연구는 종이책과 전자책 형태로 유통되는 단행본을 수집 대상으로 삼았으며, 웹상에서 유통되는 웹소설과 웹툰은 수집 범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였다. 최근 웹소설·웹툰의 출판 비율이 종이책을 상회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웹 기반 콘텐츠를 통한 발레 지식의 생산과 유통은 본 연구가 다루지 못한 중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편 절판된 도서의 경우 실물 입수가 어려워 서지 정보 중심의 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내용 분석의 깊이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저자의 무용 전공 여부, 집필 의도 등 일부 항목은 공개 정보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미표기로 처리된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저자 구성 분석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친다. 실용취미·예술인문·에세이 등의 장르 분류는 본 연구가 설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서술 방식이 혼합된 도서에 대한 분류에 일정 수준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장르 분류는 연구자 단독으로 수행되었으며, 별도의 검토자에 의한 교차검토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혼합형 도서의 분류 결과에 연구자의 판단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본 연구의 한계로 밝혀 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준 시점은 2026년 3월로, 현재도 출판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동향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또한 본 연구자의 저작 역시 분석 대상 257권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연구자는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저작에 대해서도 동일한 장르 분류 기준과 서술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저작에 대한 개별적 논평은 자제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기여를 기대한다. 첫째, 국내 발레 단행본 257권을 망라적으로 수집·분류함으로써, 발레 지식 생산의 역사적 지형도를 최초로 제시한다. 이는 발레사 연구, 문화 담론 연구, 예술 출판 연구 등 인접 분야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단행본을 무용학 연구의 분석 단위로 적극적으로 채택함으로써, 공연·교육·치료 중심으로 편중된 기존 무용학 연구의 방법론적 외연을 확장하는 선례를 제공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분석틀은 발레 이외의 타 무용 장르, 혹은 다른 예술 영역의 단행본 연구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출판 현황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최초의 발레 관련 단행본은 임을파의 『발레』이다. 이듬해인 1963년에는 발레리나 송혜경의 『第三의 青春: 젊은 발레리나의 手記』가 출판되었다. 무용가 송범의 서문을 수록한 이 책은 발레 기법이나 이론을 체계적으로 다루기보다, 한 젊은 발레리나의 열정과 사랑, 일상을 담은 청춘 고백록의 성격을 띤다. 이어 1969년에는 홍정희의 『발레 용어소사전(用語小辭典)』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발레 용어를 한국어로 정리 및 해설한 실용서로서, 당시 표준화되지 않은 발레 용어 체계를 독자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려 한 최초의 시도로 평가된다. 이 세 권은 국내 발레 단행본이 출판 초창기부터 이론서(임을파, 1962), 에세이(송혜경, 1963), 실용서(홍정희, 1969)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즉, 발레 지식의 출판은 처음부터 특정 장르에 수렴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형식을 통해 서로 다른 독자층에 접근하려는 복수의 지향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초기 다방향성은 이후 국내 발레 출판의 장르적 다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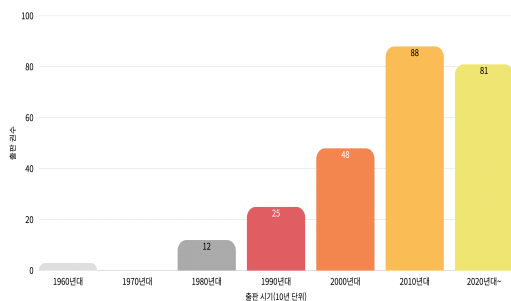
본 연구는 수집된 257권을 실용취미, 예술인문, 에세이, 문학, 어린이, 기타의 6개 장르로 분류하였다. ① 실용취미는 용어 사전·매뉴얼·테크닉 해설서 등 발레의 수행 방식이나 신체 원리를 중심으로 서술된 도서를 포함하며, 실용적 서술에 역사적·언어학적 내용이 부분적으로 결합된 혼합형 도서도 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예술인문은 발레의 역사·미학·비평·이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서이며, ③ 에세이는 저자의 경험과 성찰을 중심으로 서술된 도서로, 발레리나 평전과 취미발레인의 수기를 포함한다. 에세이와 실용취미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에는 실용취미로 분류하였다. ④ 문학은 발레를 소재로 한 소설·시 등의 창작물이며, ⑤ 어린이는 도서 분류 기준상 아동·유아 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림책·동화·아동 실용서를 포함한다. ⑥ 기타는 사진집·만화 등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도서이다.

본 장에서는 1962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수집된 257권을 대상으로 출판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시기별 출판 추이, 장르별 분포, 국내도서와 번역서의 비율 및 장르별 교차 분포, 절판률, 출판현황별 분포, 출판사별 발행 패턴, 복수 저술 저자 현황, 제목 키워드 분석을 순서대로 검토함으로써, 국내 발레 출판이 걸어온 궤적과 그 변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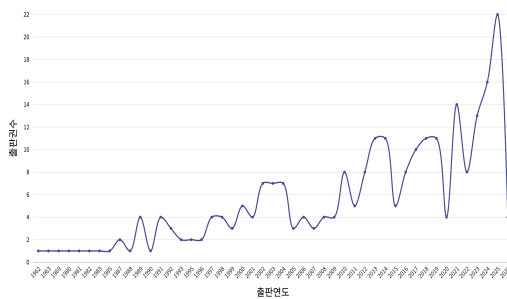
1. 시기별 출판 현황

국내 발레 단행본의 시기별 출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추이를 1년 단위로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1권으로 소폭의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2021년에는 14권으로 당시까지 단일 연도 최다를 기록하였다. 이후 2024년 16권, 2025년 22권으로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2020년에는 4권으로 전후 연도 대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출판 시장 전반의 위축이 본격화된 시기와 겹친다. 전반적으로 국내 발레 단행본의 출판량은 2010년대 이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특히 2020년대 들어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국내 발레 단행본
시기별 출판 현황(10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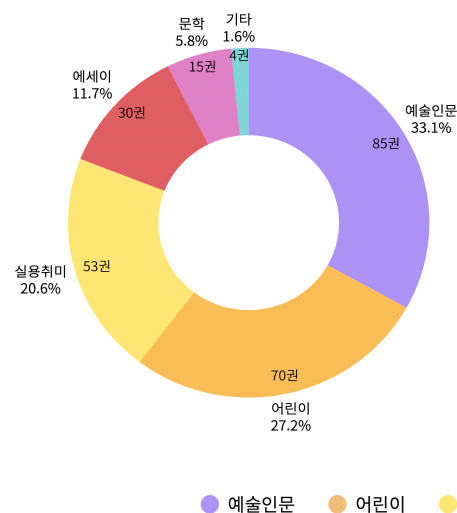


〈그림 2〉 국내 발레 단행본
연도별 출판 현황(1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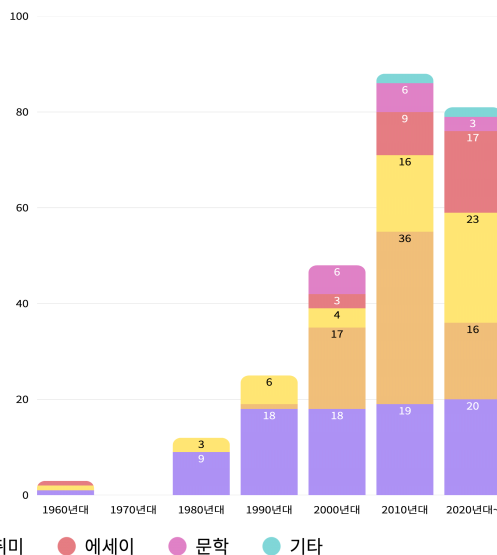
2. 장르별 분포

수집된 257권을 장르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르별로는 예술인문이 85권(33.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어린이 70권(27.2%), 실용취미 53권(20.6%), 에세이 30권(11.7%), 문학 15권(5.8%), 기타(사진집·만화) 4권(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인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발레가 오랫동안 전문예술 담론의 영역에서 소비되어 왔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어린이와 실용취미를 합산하면 47.9%에 달하여, 실제로는 전문 이론서 외의 형식을 취하는 도서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실용취미 도서의 독자층이 반드시 비전문 독자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발레를 신체적으로 수행하는 독자를 폭넓게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국내 발레 단행본 장르별 분포,
총 257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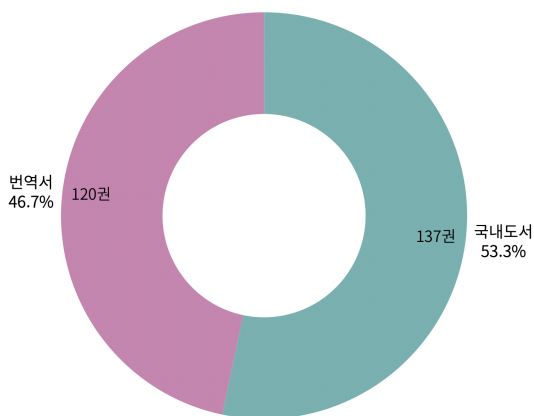
〈그림 4〉 국내 발레 단행본 시기별 장르 비율

이러한 장르별 분포는 시기에 따라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그림 4). 1980~90년대에는 예술인문이 각각 75%, 7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당시 발레가 전문예술 담론의 영역에서 주로 소비되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예술인문 중심의 흐름은 2000년대 이후에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2000년대에 들어 어린이 장르가 35%로 급등하며 독자층의 다변화가 시작된다. 이는 발레가 전공자 중심의 전문 예술에서 벗어나 아동·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 콘텐츠로 확장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2010년대에는 어린이 장르가 41%로 최고치에 달한다. 이는 같은 시기 유아 발레 교육이 확산된 시점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현상으로, 출판 시장에서의 어린이 발레 도서 증가와 유아 발레 교육의 확산이 시기적으로 병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에세이 장르는 전체 257권 중 30권(11.7%)을 차지하는데, 시기별로는 2000년대 3권(6.3%), 2010년대 9권(10.2%), 2020년대 17권(21.0%)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는 2010년대 이후 성인 취미발레 인구의 증가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현상으로 해석되며, 특히 2020년대 들어 그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린이 장르와 에세이 장르의 증가 현상의 사회적 배경과 담론적 함의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상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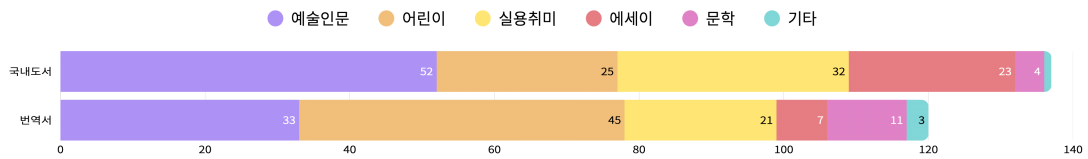
3. 국내도서 및 번역서 비율 분석

수집된 도서의 국내도서와 번역서 비율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국내 발레 단행본 국내도서·번역서 비율, 총 257권

전체 257권 가운데 국내도서는 137권(53.3%), 번역서는 120권(46.7%)으로 국내도서가 다소 우세한 가운데 번역서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발레가 서구에서 이식된 예술 형식임을 감안할 때, 출판 초창기부터 번역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음을 시사한다. 특히 1980~1990년대에는 번역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 시기 번역서는 주로 예술인문 장르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2020년대 이후에는 국내도서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취미발레 관련 에세이와 실용취미 도서를 중심으로 국내 저자의 활발한 저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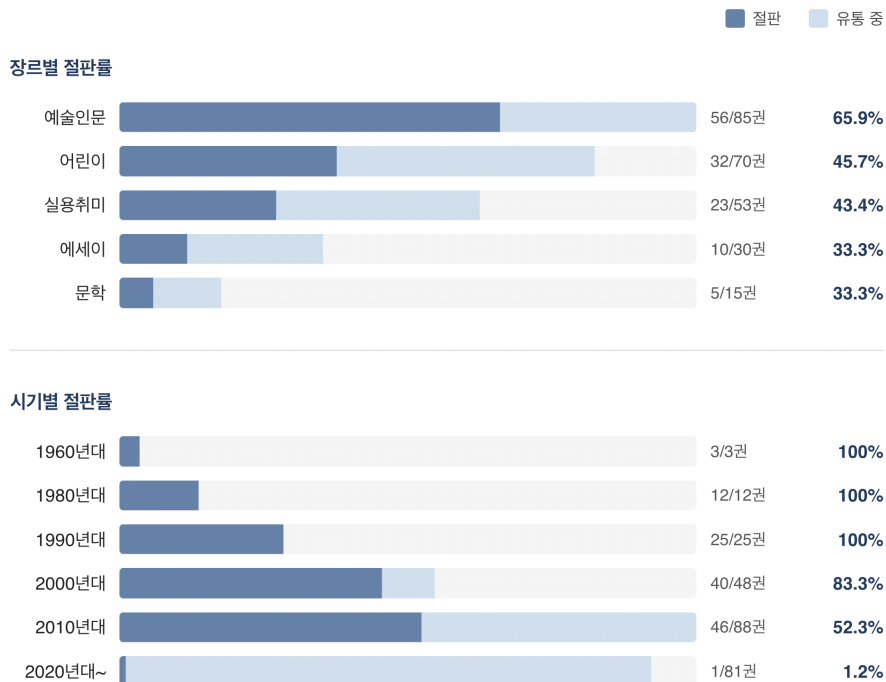


〈그림 6〉 국내 발레 단행본 장르별 국내도서·번역서 교차 분포

장르별 국내도서와 번역서의 분포를 교차 분석한 결과, 에세이 장르는 국내도서가 23권(77%)으로 가장 높은 국내도서 비율을 보인 반면, 어린이 장르는 번역서가 45권(64%)으로 우세하였다. 문학 장르 역시 번역서가 11권(7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에세이 장르의 높은 국내도서 비율은 발레리나 당사자 또는 취미발레인의 개인적 경험을 담은 저술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며, 어린이 장르의 높은 번역서 비율은 영미권 및 일본에서 검증된 어린이 발레 도서의 국내 수입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술인문 장르는 국내도서(52권, 61%)와 번역서(33권, 39%)가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하며, 실용취미 역시 국내도서(32권, 60%)가 약간 우세한 가운데 번역서(21권, 40%)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4. 절판률 분석

수집된 도서의 절판 현황을 장르별·시기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국내 발레 단행본의 장르별 절판률(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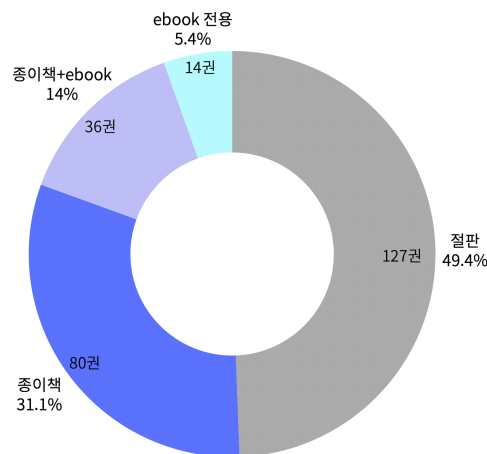
〈그림 8〉 국내 발레 단행본의 시기별 절판률(아래)

장르별 절판률을 살펴보면, 예술인문이 85권 중 56권(65.9%)으로 가장 높은 절판률을 보였으며, 어린이 45.7%, 실용취미 43.4%, 에세이 33.3%, 문학 3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절판 여부는 2026년 4월 알라딘·교보문고 유통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ebook 전용 전환 도서도 절판에 포함하였다. 예술인문의 높은 절판률은 이 장르의 출판이 1980~1990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시기 도서 대부분이 현재 절판 상태임을 반영한다. 실용취미의 경우 최근 출판이 활발하여 절판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1960~1990년대 출판 도서의 절판률이 100%에 달하며, 2000년대는 83.3%, 2010년대는 52.3%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2020년대 이후 출판 도서의 절판률은 1.2%에 불과하여, 최근 출판 도서 대부분이 현재 유통 중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기별 절판률의 차이는 단순히 도서의 노후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발레 출판 시장의 독자 기반 및 수요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이전에 출판된 도서가 전량 절판된 것은 당시 발레 독자층이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하며, 2010년대 이후 도서의 절판률 감소는 취미발레 인구 확대에 따른 시장의 확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출판현황별 분포

수집된 도서의 출판현황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9〉 국내 발레 단행본의 출판현황별 분포, 총 257권

전체 257권 가운데 절판 도서는 127권(49.4%)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재 유통 중인 도서는 종이책 80권(31.1%), 종이책+ebook 병행 36권(14.0%), ebook 전용 14권(5.4%)으로, 유통 중인 도서 총 130권(50.6%) 가운데 ebook 형태로 접근 가능한 도서는 50권(전체의 19.5%)에 달하였다. ebook 도서의 비중은 최근 출판 도서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디지털 출판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 한편 ebook 전용 도서 14권은 대부분 자가출판 플랫폼을 통해 출판된 것으로, 기성 출판사를 거치지 않은 저자 직접 출판의 사례로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6. 출판사별 발행 권수 분석

3권 이상을 발행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발행 권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국내 발레 단행본 출판사별 발행 권수(3권 이상 기준)

순위	출판사	권수	특징
1위	동글디자인	12권	2018~2026, 번역서 중심
2위	금광	11권	1987~2014, 예술인문·실용취미
3위	플로어웍스	8권	2020~2022, 국내도서 전문
4위	북피움	6권	2024~2026, 번역서+국내 혼합
5위	현대미학사	5권	1992~2000, 예술인문 전문
6위	교학연구사	4권	1989~2003
7위	대한미디어	4권	1995~2016
8위	예니	4권	1998~2002
9위	삼신각	3권	1990~1992
10위	현암사	3권	2002~2010, 어린이
11위	신영미디어	3권	2011~2019, 문학
12위	시공아트	3권	2013~2018
13위	성균관대출판부	3권	2017~2023, 예술인문
14위	어스본코리아	3권	2019~2021, 어린이

3권 이상을 발행한 출판사는 총 14곳으로 확인되었다. 동글디자인이 12권으로 가장 많은 발행 권수를 기록하였으며, 금광(11권), 플로어웍스(8권), 북피움(6권), 현대미학사(5권)가 뒤를 이었다. 출판사의 활동 시기에 따른 특징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금광 출판사는 1987년부터 2014년까지 약 27년간 발레 관련 도서를 지속적으로 출판하였으나, 이후 신간 발행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현대미학사(1992~2000), 교학연구사(1989~2003), 예니(1998~2002)는 주로 1990~2000년대 예술인문 장르 번역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플로어웍스는 2020~2022년 집중적으로 국내 저자의 예술인문·에세이 도서를 출판하였다. 동글디자인과 북피움은 2020년대 들어 번역서를 중심으로 실용취미·에세이 장르에 집중하는 현재 발레 출판 시장의 구조를 대표하는 출판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발레 단행본 출판의 주요 행위자는 시기에 따라 교체되어 왔으며, 각 시기의 주요 출판사는 해당 시기 발레 담론의 성격과 독자층의 변화를 반영한다.

7. 복수 저술 저자 현황 분석

3권 이상의 발레 관련 단행본을 발행한 저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국내 발레 단행본 복수 저술 저자 현황(3권 이상 기준)

저자	권수	장르/시기
시마다 사토시	5권	실용취미, 2023~2026
이덕희	3권	예술인문, 1981~1992
서차영	3권	예술인문+실용취미, 1995~1997
김공수	3권	예술인문+에세이, 1998~2024
김경희	3권	예술인문, 2012~2023
정옥희	3권	에세이+예술인문, 2020~2022

3권 이상의 단행본을 발행한 저자는 총 6명으로 확인되었다. 시마다 사토시가 5권으로 가장 많은 발행 권수를 보였으며, 이덕희·서차영·김공수·김경희·정옥희가 각 3권으로 뒤를 이었다. 시마다 사토시의 5권은 모두 실용취미 장르로, 2023~2026년에 집중 출판된 일본 번역서이다. 이덕희(1981~1992)와 서차영(1995~1997)은 1980~90년대 예술인문 저술을 통해 초기 발레 지식 체계 형성에 기여한 저자로, 이 시기 복수 저술이 특정 저자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시기별 복수 저술 저자의 장르 분포도 주목할 만하다. 1980~90년대 복수 저술 저자들이 예술인문 장르에 집중된 반면, 2010년대 이후 복수 저술 저자들은 에세이·실용취미로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정옥희(에세이+예술인문, 2020~2022)의 사례는 발레 전공자가 전문 이론서뿐 아니라 에세이 영역으로 저술 범위를 확장하는 흐름을 대표한다. 이러한 복수 저술 저자의 장르 전환 양상은 발레 출판 담론이 특정 저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추적하는 데 유효한 단서를 제공한다.

8. 제목 키워드 분석

수집된 257권의 제목에 등장하는 주요 어휘를 추출하고 의미 단위로 클러스터화하여 장르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국내 발레 단행본 257권 제목 키워드 클러스터별·장르별 출현 빈도(전체 6개 장르 기준, 문자열 매칭 방식)

상위범주	키워드	예술인문 (85권)	실용취미 (53권)	어린이 (70권)	에세이 (30권)	문학 (15권)	기타 (4권)	계
인물·정체성	발레리나	4	5	33	5	10	-	57
	무용수·무용가	2	2	-	3	-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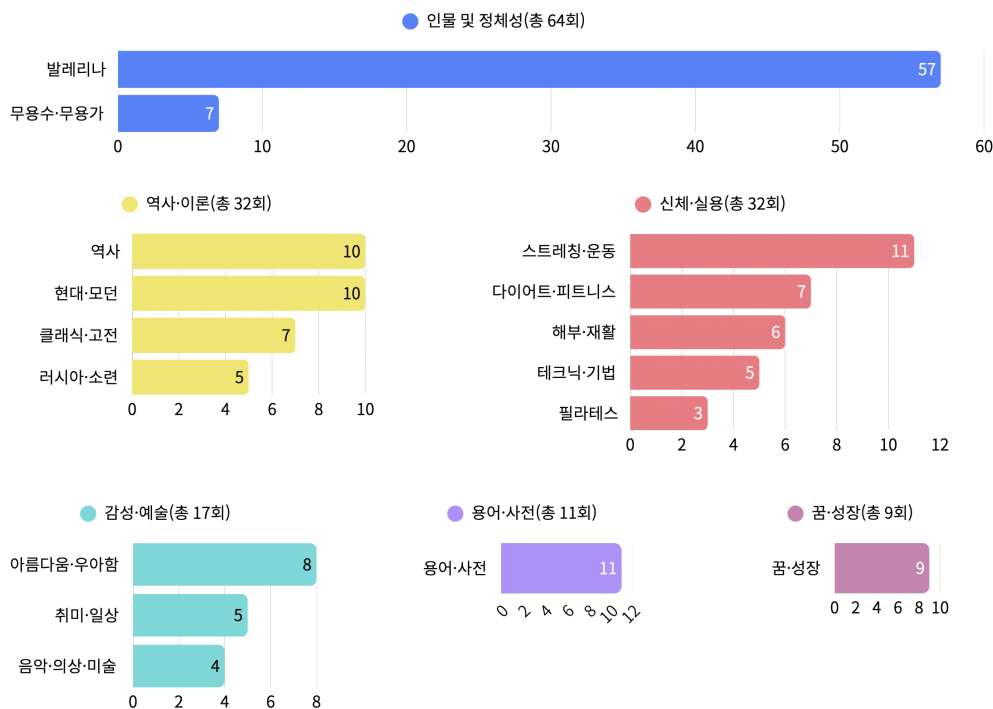
역사·이론	역사	10	-	-	-	-	-	10
	현대·모던	9	-	-	1	-	-	10
	러시아·소련	5	-	-	-	-	-	5
	클래식·고전	3	3	1	-	-	-	7
신체·실용	테크닉·기법	1	4	-	-	-	-	5
	스트레칭·운동	-	11	-	-	-	-	11
	다이어트·피트니스	-	7	-	-	-	-	7
	해부·재활	1	4	-	1	-	-	6
	필라테스·융합	-	3	-	-	-	-	3
감성·예술	음악·의상·미술	4	-	-	-	-	-	4
	취미·일상	-	1	-	4	-	-	5
	아름다움·우아함	1	4	1	2	-	-	8
꿈·성장	꿈·성장	-	1	6	1	1	-	9
용어·사전	용어·사전	1	10	-	-	-	-	11

전체 257권의 제목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어휘는 ‘발레리나’(57회)로, 이는 단일 어휘로서 압도적인 출현 빈도를 기록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 중 33회가 어린이 장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발레를 표상하는 가장 지배적인 기표인 ‘발레리나’가 주로 아동 대상 출판물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발레 담론에서 어린이 장르가 수행하는 이미지 재생산 기능을 수치로 뒷받침한다.¹⁾

장르별로는 뚜렷한 분화 양상이 확인된다. 예술인문 장르는 ‘역사’(10회), ‘현대·모던’(9회), ‘러시아·소련’(5회) 키워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이 장르가 발레를 서구 예술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위치시키는 계몽적 서술 전통을 견지해 왔음을 반영한다. 실용취미 장르에서는 ‘스트레칭·운동’(11회), ‘용어·사전’(10회), ‘다이어트·피트니스’(7회), ‘테크닉·기법’(4회)이 상위를 차지하여, 발레가 신체 관리 및 기능 습득의 도구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아름다움·우아함’ 키워드가 실용취미 장르에서 4회 출현한다는 점은, 신체 미용 담론이 기능적 실용 담론과 결합되는 방식을 시사한다.

어린이 장르에서는 ‘발레리나’(33회)와 ‘꿈·성장’(6회)이 압도적이며, 에세이 장르에서는 ‘발레리나’(5회)에 이어 ‘취미·일상’(4회)과 ‘아름다움·우아함’(2회)이 상위를 차지한다. 이 두 장르는 ‘발레리나’라는 공통 키워드를 공유하면서도, 어린이 장르는 발레리나를 이상화된 정체성으로 제시하는 반면 에세이 장르는 그것을 성인 취미 생활자의 경험적 서사로 재맥락화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키워드 분포의 차이는 동일한 발레 담론이 독자층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하 III장에서 각 장르의 담론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토대가 된다.

1) 기타 장르(사진집·만화, 4권)는 16개 키워드 중 어느 것도 제목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전 항목에서 0회로 나타났다.



〈그림 10〉 국내 발레 단행본 257권 제목 키워드 클러스터의 6범주 분류 및 빈도

III. 담론적 특성 분석

앞서 제시한 계량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국내 발레 단행본에 내재된 담론적 특성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출판 경향의 기술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발레가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재구성되어 왔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특성은 각기 독립적으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발레 지식이 생산·전달되는 방식이 총체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함께 나타난 상호 연관된 층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발레 출판 담론의 변화가 지식 생산 주체의 재편(탈전문화), 지식 서술 방식의 전환(탈선형화), 지식 형식의 다원화(혼종화), 독자층의 확장(아동화), 언어 체계의 불안정성(비표준화)이라는 다섯 층위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지식을 만드는 주체, 지식을 서술하는 방식, 지식이 취하는 형식, 지식이 도달하는 독자, 그리고 지식을 매개하는 언어라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1. 발레 지식의 탈전문화와 발레의 일상화: 수행 예술에서 라이프스타일로

국내 발레 단행본의 저자 구성은 초기 무용 전공자 및 이론가 중심에서 점차 비전공자와 취미 발레 경험자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에세이 장르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발레리나 개인의 삶을 다룬 자전적 서사뿐 아니라 성인 취미발레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서술이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저자 구성의 변화는 발레 지식 생산의 주체가 전문 예술가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 주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세이 장르 총 30권 중 취미발레인의 에세이는 12권에 달한다. 초기에는 『니진스키: 영혼의 절규』(바슬라브 니진스키, 2002), 『당신의 발에 입 맞추고 싶습니다 - 세기의 발레리나 강수진 라이프 스토리』(장광열, 2004), 『마오쩌둥의 마지막 댄스 - 중국 시골 소년 발레로 세계를 누비다』(리춘신, 2009)와 같이 무용수에 대한 전문가의 평전과 자서전이 에세이 장르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성인 취미발레인이 저술 주체로 등장하는 현상은 2010년대 이후 성인 취미발레 인구의 급증과 밀접하게 연동된다.

성인취미발레의 확산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사회적 토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박재홍(2005)은 취미 발레 수업 참여자들의 동기를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근거하여 분석하면서, 발레에 대한 사전의 부정적 인식(고비용, 동작의 난이도, 특정 소수를 위한 장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예술에 대한 동경, 신체적 아름다움의 추구, 또는 타자의 권유 등 다양한 동기를 통해 발레 수업에 진입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참여 저변의 확대는 2010년대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허가영(2019)은 성인발레 교육 경험이 여성 학습자의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인발레 교육 참여자들은 발레 수업 경험을 통해 발레 공연 관람, 무용 관련 이론 강좌 수강, 발레 관련 도서 탐독 등 발레 전반에 대한 문화향유 행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발레를 단순한 신체 단련의 수단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매개로 공연예술 전반에 걸친 문화적 감수성이 확장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인발레 참여가 개인적 취미의 차원을 넘어 발레를 비롯한 공연예술에 대한 능동적 문화향유 주체를 형성하는 사회적 기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성인발레 참여자가 잠재적 발레 독자층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2010년대 이후 에세이 및 실용취미 장르 발레 단행본의 급증과 출판 시장의 구조적 팽창을 설명하는 중요한 배경 요인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조명할 수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페더스톤(Featherstone, 1990; 1991; 1992)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성장으로 인해 누구나 예술을 소유하고 향유할 수 있게 되면서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일상생활이 심미적 요소와 점점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일상생활의 심미화(The aestheticization of everyday life)’ 현상을 주장하였다. 김보름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아마추어 발레 실천에 적용하면서, 예술 소비자가 예술 상품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예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일상에서 예술을 실천(praxis)하는 주체적 생산자로 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2017년 마포아트센터 무대에 오른 스완스 발레단의 창단 공연은 이 논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다. 20대부터 50대까지 학생, 주부, 교사, 약사, 의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일반인 단원들로 구성된 이 아마추어 발레단의 공연이 공연장을 감동으로 채운 것은, 고급예술의 소비자였던 대중이 이제 예술 생산자의 위치에까지 다가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김보름, 2018, pp. 14-26). 취미발레인이 에세이의 저술 주체로 등장하는 현상은 이러한 흐름의 출판적 발현으로 읽힌다.

이러한 저자층의 탈전문화는 흥미롭게도 같은 시기 발레 공연의 장(場)에서 관찰되는 흐름과 대조를 이룬다. 박은혜는 1950년대 이후 신문기사에 대한 양적 내용분석을 통해, 1988년 이후 발레예술가 중심의 기사 비중이 69.5%에서 78.1%로 증가하는 동시에, 콩쿠르 입상 및 전문발레단에서의 활동경력과 같

은 발레전문경력이 발레예술가의 위상을 결정하는 핵심적 위계원리로 부상해왔음을 밝힌 바 있다(28.4% → 43.2%). 이는 한국 발레계가 부르디외가 말한 ‘제한적 생산의 장’으로서 전문성 중심의 자율적 위계를 강화해 온 과정으로 해석된다(박은혜, 2018a, pp. 112-118). 즉 발레는 무대라는 공연예술의 장에서는 전문경력 중심의 배타적 위계를 공고히 해 온 반면, 출판이라는 담론의 장에서는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저술 주체의 자리를 개방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상반된 현상이라기보다, 발레가 무대 위에서 고급예술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수록 그 세계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대중을 위한 출판 시장의 수요가 동반 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적 팽창은 실제 출판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2024년 이후 발레 도서를 집중적으로 출간해 온 북피움 담당자는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10여 년간 취미발레 시장이 성장해 온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아파트 상가마다 발레학원 간판이 눈에 띄 정도로 발레학원이 급증했고, 문화센터나 생활체육시설 등에도 발레 프로그램이 확대 개설되고, 프라이빗 레슨실이 생겨나고, 연습실 대여 산업이 성장하고, 발레 유튜브버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취미발레인들의 인터넷 카페(레오타드를 입는 사람들, 회원수 3만 6,000여명)가 개설되는가 하면, 아마추어를 위한 콩쿠르도 늘어나고, 아마추어 발레단도 생기고, 다양한 해외 브랜드가 국내에 수입되고 국내 발레복 브랜드도 론칭되는 등 산업 전반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징표를 여러 분야에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북피움 인터뷰 中)

이와 같은 증언은 학원·레슨·커뮤니티·대화·브랜드 등 발레 관련 산업 전반이 동반 성장하고 있음을 구체적 수치와 현장 감각으로 보여주며, 앞서 살펴본 김보름(2018)의 아마추어 예술 실천 논의와 페터스톤의 일상생활의 심미화 테제가 이론적 예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진행 중인 현상임을 뒷받침한다. 특히 주된 독자층이 “전문직 직장인 비중이 높고… 자기계발 욕구가 강한 여성들”(북피움 인터뷰 中)이라는 관찰은, 앞서 살펴본 취미발레인 에세이 저술 주체의 확장이 특정 사회경제적 계층의 문화적 실천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동글디자인 담당자 역시 발레 도서 출판을 지속해 온 배경으로 “최근에는 취미발레 인구가 늘면서 관심도가 커진 것도 고려하였습니다”(동글디자인 인터뷰 中)라고 밝힌 바 있어, 취미발레 인구의 증가라는 현상이 개별 출판사의 인상이 아니라 복수의 출판 주체가 독립적으로 감지한 시장 신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 대표적 사례로 윤지영의 『어쩌다 마주친 발레: 우연히 만난 인생의 행복한 동반자』(2016)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국내 최초의 비전문가 취미발레인 에세이로 꼽히며, 이후 취미발레인이 자신의 경험을 서사화한 도서가 다수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등장한 저작들은 그 형식과 관점에서도 한층 다양해졌다. 임이랑의 『시바리나의 발레일기 - 취미 발레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행복감 그림에세이』(2022)는 귀여운 시바견 캐릭터를 활용해 발레 일상을 그림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으며, 신예리의 『발레를 배우며 생각한 것들: 33년 차 저널리스트, 우아하고도 단단하게 인생을 건너다』(2024)는 저널리스트라는 비전문가의 시각에서 발레의 수행 과정을 인생의 성장 서사와 결합한다. 한편 이수경의 『오늘도 수강생들은 발레를 하며 귀엽게 좌절합니다: 발레 마스터 이수경의 우아하고 유쾌한 성인 발레 관찰 에세이』(2026)는 발레 교사의 시각에서 성인 취미 수강생들의 경험을 관찰기 형식으로 담아내며, 생산 주체의 다변화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탈전문화의 흐름은 저자 층위뿐 아니라 출판사 설립의 층위에서도 확인된다. 2020년부터 발레 전문 출판사를 표방해 온 플로어웍스의 설립 배경이 대표적이다. 담당자는 서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취미 발레를 하면서 궁금했던 것을 위주로 발레 관련 글을 쓰다가 카카오 브런치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렇게 첫 발레 책을 출간하고 보니 저처럼 발레 문외한이 접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 그렇게 글을 찾아 읽다가 아예 우리나라에도 발레 인문 교양서가 있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단순한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플로어웍스 인터뷰 중)

이 진술은 발레 전공자나 기성 출판 편집자가 아니라, 취미발레인 개인의 궁금증이 출판 기획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탈전문화는 개별 저자의 층위를 넘어 발레 지식을 매개하는 출판 주체 그 자체의 재구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발레 전문 출판사 플로어웍스의 존재 자체가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10년대 이후 실용취미 장르의 급증은 발레의 수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용취미 도서는 스트레칭, 기본 동작, 신체 정렬 등 발레의 신체적 수행을 일상적 운동으로 재구성하며, 에세이 장르는 발레를 통해 경험한 감정, 자기 인식, 삶의 변화를 서사화한다. 이러한 경향은 II장 8절의 제목 키워드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아름다움·우아함’ 키워드는 실용취미 장르에서 4회 출현하여 신체 관리라는 기능적 실용 담론이 미용적 자기 관리 담론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며, ‘취미·일상’ 키워드는 에세이 장르에서 4회 출현하여 발레가 일상적 여가 활동으로 서사화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 과정에서 발레는 ‘무대 위의 예술’에서 ‘몸을 통해 실천되는 라이프스타일’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이러한 변화는 발레의 대중화라는 단순한 양적 확장을 넘어, 발레의 존재 방식 자체가 재정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발레는 더 이상 전문 훈련과 제도적 교육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지식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 경험과 감각을 통해 재구성되는 경험 기반 지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엘리트 예술로 간주되어 온 발레가 탈전문화(de-professionalization)의 과정을 거치며 일상적 문화 실천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출판 시장은 이 과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촉진하는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

2. 발레 서술의 탈선형화: 통사적 역사 기술에서 주제 중심 서사로

초기 국내 발레 단행본은 발레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기술하는 선형적 서술 방식을 주로 채택하였다. 국내 최초의 발레 관련 단행본인 임을파의 『발레』(1962)는 제1편 발레의 이론, 제2편 발레의 지식, 제3편 발레의 기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은 발레의 기원, 발레의 발전, 러시아의 발레, 현대무용의 발생, 러시아 발레의 발전, 모단발레와 현대무용 순으로 서양 무용의 역사를 담고 있다. 『발레의 역사』(마리-프랑수아즈 크리스투, 1989) 역시 제1장 궁중무용에서 시작하여 제4장 낭만주의 발레, 제6장 러시아 발레, 제10장 현대발레 순으로 서술하는 전형적인 통사(通史) 구성을 취한다. 이처럼 1960~90년대 출판된 예술인문 장르 도서들은 서구 발레의 발생부터 근대 발레의 전개까지를 시대순으로 서술하는 구성을 공유하며, 이는 한국 독자에게 발레를 ‘역사적 맥락을 가진 서구 예술’로 소개하려는 계몽적 기획과 관련된다.

2000년대 이후에는 주제별·작품별 서술로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은경의 『발레 이야기: 천상의 언어, 그 탄생에서 오늘까지』(2001)는 이 전환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13년간 국내외 발레 현장을 지켜 온 전문 저널리스트가 발레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교양서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저술한 것으로, 통사적 서술의 형식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각 시대의 핵심 개념과 작품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조직하여 독자가 원하는 항목에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성을 취한다. 특히 첫 번째 챕터 ‘이야기로 배우는 발레의 역사’는 최초의 발레 스타 루이 14세, 발레리나의 치마 길이로 살펴본 발레사, 역사 속 위대한 라이벌들의 경쟁 등 흥미를 유발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역사를 스토리텔링한다. ‘발레가 보인다’ 챕터에서는 음악, 의상, 발레 슈즈 등 발레 이해에 필수적인 요소들과 함께 에드가 드가의 작품에서 보이는 발레의 명암, 「백조의 호수」와 「지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또 ‘몸, 그 찬란한 언어’는 상처뿐인 영광의 발, 절벽 같은 가슴,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등, 발레리나로서의 수명 등 몸에 얹힌 담론을 제공한다.

이러한 비선형적 서술 실험은 2020년대 이후 한층 급진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정옥희의 『이 춤의 운명은』(2020)은 열두 개의 춤 작품을 각각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면서도, 저자 스스로 “책에선 대체로 초연된 시대 순으로 흐르지만, 얼마든지 다르게 읽어 볼 수 있다”고 밝힌다. 실제로 이 책은 원작 개념의 해체(‘흐트러지는 원작’), ‘춤’이라는 공동의 언어, 춤과 춤이 아닌 것의 경계라는 세 가지 주제 축을 따라 재배열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독자에게 켄더와 계급, 인종문제, 저작권,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이슈와 키워드를 찾아내 쪼개고 다시 연결해도 좋다”고 직접 권유한다. 이는 이은경(2001)이 취했던 통사적 골격 위의 주제별 재조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자가 서술의 순서 자체를 독자의 선택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이다. 즉 텍스트의 개방성이 편집상의 배려를 넘어, 저술의 근본 원리로 격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영재의 『발레 너머 예술: 발레, 예술, 문화를 향한 비평적 시선』(2024)은 이러한 흐름을 목차 구성 자체에서 한층 더 밀고 나간 사례다. 이 책은 역사, 음악, 미술, 드라마, 영화, 패션, 한국 발레라는 일곱 개의 주제 범주로 장을 구성하며, 시대순 서술은 각 장 내부의 부분적 장치로만 활용될 뿐 전체 골격을 이루지 않는다. II부는 발란신과 스트라빈스키의 협업을, III부는 드가를 비롯한 화가들이 그린 발레리나와 무대를, V부는 「The Red Shoes」와 같은 발레 영화의 이데올로기를, VI부는 ‘발레코어룩’이라는 패션 트렌드를 각각 독립적으로 다룬다. 이는 발레사를 하나의 연대기로 서술하는 대신, 음악·미술·영화·패션이라는 인접 매체별로 발레와의 접점을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차 설계는 후술할 3절의 장르적 혼종화가 서술 구조의 층위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탈선형화와 혼종화가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상호 강화하는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비선형적·주제 중심적 서술에 대한 수요는 출판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북피움 담당자는 향후 발레 출판 시장에서 필요한 도서 유형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동작 습득을 넘어 발레의 역사와 미학적 배경을 다루는 인문학적 교양서는 발레를 하나의 문화적 ‘문해력’으로 향유하려는 독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것입니다.”(북피움 인터뷰 중)

이는 이은경(2001), 정옥희(2020), 노영재(2024)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도들이 개별 저자의 실험적 선택에 그치지 않고, 발레 지식을 문해력이라는 틀 아래 재구성하려는 시장의 지속적 요구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선형적 서술 방식은 인터넷 정보 검색 환경에서 형성된 독자의 정보 접근 방식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보인다. 독자는 거대 서사를 처음부터 읽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을 갖는 특정 작품이나 안무가, 시대를 선택하여 진입할 수 있다. 이는 발레 지식의 서술 방식이 독자의 변화에 대응하며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의 통사적 서술이 독자를 지식의 수동적 수용자로 상정하는 계몽적 텍스트였다면, 주제 중심의 비선형 서술은 독자의 관심과 선택을 전제로 구성되는 개방적 텍스트에 가깝다. 결국 발레 서술의 탈선형화는 단순한 편집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발레 지식이 누구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판물의 독자 구성이 전문가 및 예비 전공자에서 일반 교양 독자층으로 이동함에 따라 서술의 문법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발레 담론의 사회적 확장과 궤를 같이한다.

3. 발레 담론의 혼종화: 장르 경계의 해체와 지식 형식의 다원화

서술 구조의 변화와 함께, 최근 국내 발레 출판에서는 인문·실용·문학·자연과학 등 상이한 지식 체계가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결합되는 장르적 혼종화(hybridiz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발레가 단일한 전문 예술 담론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지적·문화적 영역과 접촉하면서 그 담론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혼종화는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편집 전략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 2020년부터 발레 도서를 집중적으로 출간해 온 플로어웍스 담당자는 그 기획 과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1인 출판사로 시작했지만 단일하게 출판사를 운영하고 싶진 않았어요. 발레할 때 제일 먼저 알고 싶었던 기초 지식—용어, 작품, 음악, 무용수—을 시작으로, 마이너하지만 조금씩 분야를 확장하게 되었고. 의상, 이론, 과학까지.”(플로어웍스 인터뷰 중)

이 진술은 플로어웍스의 도서 라인업이 개별 저자의 우연한 관심사가 아니라, ‘기초 지식 확립 → 인접 분야 확장’이라는 편집자의 명확한 로드맵에 따라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러한 기획 의도는 출간작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김지현의 『발레 음악 산책』(2021)은 클래식 발레의 대표 작곡가 10인을 선별하여 산책 코스로 설정하고, 음악사에서 소외되었던 무명의 발레 음악가들과 잘 알려지지 않은 발레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한다. 정한아의 『튜튜, 욕망을 입다: 발레 의상에 관한 거의 모든 것』(2022)은 발레 의상의 역사와 현재를 복식 사적 시각에서 탐색하며, 이유라, 이미라의 『올바른 발레 용어』(2021)는 언어·문화·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직접 취미발레를 한 저자가 발레 용어에 언어학적 접근을 시도한 사례로서, 프랑스어의 기본적인 문법과 발음 법칙, 발레 용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소개하고 발레 동작의 원 뜻을 수행 방법과 함께 정리함으로써 취미발레인을 대상으로 발레 용어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기획 의도가 두드러진다. 배진수의 『물리에 뿌리에』(2022)는 수십 년을 공학 분야에서 보낸 과학자가 발레 동작에 내재한 물리학적 원리를 일반 독자에게 설명하는 이색적인 융합을 시도한다. 발레 동작을 지구의 중력과 지렛대의 원리, 고유 수용성 감각으로 설명하는 이 책은 발레가 인문학적 사유의 대상일 뿐 아니라 자연과학적 탐구의 대상으

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장르 확장 전략은 북피움에서도 확인되나, 그 지향점은 다소 다르다. 북피움 담당자는 실용서 중심으로 출발한 이후 인문·에세이 분야로 카탈로그를 넓혀 온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북피움은 발레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실용서뿐만 아니라 인문·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순차적으로 론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발레 도서의 명가 = 북피움’이라는 출판사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북피움 인터뷰 中)

담당자는 이러한 장르 확장을 통해 실용서에서 확보한 독자의 신뢰도가 에세이 구매로 이어지고, 에세이로 입문한 독자가 다시 실용서를 찾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된다고 밝혔다(북피움 인터뷰 中). 이는 플로어웍스가 ‘지식 영역의 확장’ 자체를 목표로 삼은 것과 달리, 북피움은 장르 혼종화를 브랜드 정체성 구축과 독자 락인(lock-in)을 위한 시장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동일한 혼종화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 추동 논리는 편집자의 지적 기획(플로어웍스)과 출판사의 브랜드 전략(북피움)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장르 경계의 해체가 필진 구성의 개방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플로어웍스 담당자는 저자 선정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전문성을 넘어서 저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발레에 대한 ‘강렬한 애정’입니다. ... 또한 플로어웍스 필진의 조건은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고 발레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해요. 때론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자기만의 발레 세계가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 필력이 좋아도 기존의 시리즈와 결이 달라서 편집자로서는 필진으로 영입하기가 어려워요.”(플로어웍스 인터뷰 中)

이는 내용상의 장르 혼종화가 필진 구성의 탈전문화를 반드시 동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오히려 발레와 무관해 보이는 분야(공학, 언어학, 복식사)의 전문성을 갖춘 필자를 발레에 대한 애정과 결합시켜 선별한다는 점에서, 플로어웍스의 혼종화 전략은 경계 없는 개방이 아니라 엄선된 전문성의 교차 배치에 가깝다. 이는 1절에서 살펴본 저자층의 탈전문화(취미발레인의 저술 주체화)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또 다른 방식의 지식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발레 전공자의 저술에서도 장르 혼종화의 흐름은 확인된다. 앞서 II장에서 복수 저술 저자로 확인된 정 옥희의 세 저작은 이 흐름을 대표한다. 『이 춤의 운명은: 살아남은 작품들의 생애사』(2020)는 무용수나 안무가가 아닌 춤 작품(作品) 자체에 주목하여, 하나의 춤이 탄생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사라지는지 그 사회적 생애를 추적하는 춤의 존재론을 전개한다. 더불어 젠더와 계급, 인종, 보존과 복원, 저작권, 국제 정세와 갈등, 테크놀로지 등 춤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는 인문학적 서술이 발레 이론과 결합된다. 『나는 어쩌다 그만두지 않았을까』(2021)는 전공자의 에세이이지만, 발레가 쥐고 있는 기득권, 줄 맞추기의 미학으로 완성되는 군무의 언어, 발레리나 엄마를 향한 사회의 포용력, 유색인 무용수가 체감하는 백인 주류 문화 등의 주제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환기하는 비평적 성격을 함께 지닌다. 『진화하는 발레 클래스』(2022)는 르네상스 시대의 댄싱 마스터의 춤 수업부터 오늘날의 교육 메소드까지 발레 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살피는 예술인문 저술로, 단순한 교수법 매뉴얼과 달리 발레 클래스를 맡은 이들의 삶과 경험이 축

적된 문화적 산물로 개념화한다. 단순 교수법의 나열을 넘어 발레 교육의 철학과 지향점이 진화해 온 과정을 살핀다는 점에서, 이 책은 실용취미와 예술인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혼종적 텍스트의 성격을 분명하게 지닌다.

에세이 장르에서의 저자 다변화는 발레를 둘러싼 경험의 언어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문학 장르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혼종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출판된 발레 소재 문학 작품들에서는 발레리나를 등장인물로 삼거나 발레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단순한 소재 활용을 넘어, 발레 예술의 미학적 측면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온다 리쿠의 『스프링』(2025)은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요르즈 하루를 중심으로 그를 둘러싼 다양한 인물들의 관점으로 사건을 풀어내는 구성을 가진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겨울나무」, 「야누스」, 「숲은 살아 있다」 등 가상의 발레 작품들은 기획의도, 안무과정, 무대 위 연출 등 실재하는 듯한 정밀한 묘사가 특징이며, 발레 무용수의 심리와 습성, 신체에 대한 묘사와 미학적 지점들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다. 특히 클래식 발레와 컨템퍼러리 발레의 차이를 ‘꽃다발과 수목’으로 비유하는 대목은, 발레 전문 담론에서 논증을 통해 도달하는 미학적 구분을 문학적 직관으로 포착한 사례로서 인상적이다.

김주혜의 『밤새들의 도시』(2025)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파리를 무대로 완벽한 비상을 꿈꾸는 한 무용수의 치열한 생을 그린다. 가난과 결핍을 딛고 최고의 프리마 발레리나가 되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 또한 견안해야 하는 예술가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비추며,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소설에서 세 도시는 각기 다른 발레 미학의 표상으로 기능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우아함이, 모스크바에는 감동이 있다. 그러나 유흥을 하는 도시는 오로지 파리뿐이다”(p. 312)라든지, “바가노바와 파리 오페라 발레 모두 우아하다고 불리었지만, 전자는 영혼, 즉 두샤를 지녔고 후자는 다른 모든 사람이 그들을 모방하고 싶게 만드는 요소, 즉 패션을 갖고 있었다”(p. 108)와 같은 서술은, 발레 연구자와 비평가들이 논증의 언어로 다루어 온 두 메소드 및 문화적 차이를 문학적 감각으로 재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두 소설이 흥미로운 것은, 학술적 논증을 통해 다루어져 온 미학적 논의들이 문학적 표현으로 재창조되고, 그 문학적 형상화가 다시 발레 담론을 풍부하게 하는 자원으로 환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발레단의 2026시즌 첫 공연인 더블빌 「블리스」& 「재키」 프로그램북에 실린 유주현 기자의 글은 온다 리쿠의 『스프링』에 등장하는 문학적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다: “클래식 발레가 꽃다발이라면 컨템퍼러리 발레는 수목(樹木)이라는 비유가 있다. 컨템퍼러리는 형태뿐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감상 포인트라는 말이다”(서울시발레단 더블빌 프로그램북, 2026, p. 13). 이는 오늘날 발레에 관한 예술적 담론의 생성이 비평, 연구, 그리고 문학예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발레 단행본의 장르적 혼종화는 그 자체로 발레 지식의 생산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출판물이 단순히 기존 담론을 전달하는 매체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성하는 장(場)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발레 담론의 혼종화는 복수의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음악학, 복식사, 언어학, 물리학 등 인접 학문과의 접합, 인문비평과 에세이의 경계 해체, 발레 전문 담론과 문학적 상상력의 교차는 발레 지식의 생태계가 단일한 전문 예술 담론의 틀을 벗어나 다층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혼종화가 개별 편집자의 지적 기획(플로어웍스), 출판사의 브랜드 전략(북피움), 발레 전공자의 비평적 확장

(정옥희), 문학적 상상력의 개입(온다 리쿠, 김주혜)이라는 서로 다른 동력에 의해 다원적으로 추동되고 있다는 점은, 이 현상이 일회적 유행이 아니라 발레 출판 생태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임을 뒷받침한다. 출판물은 이 과정에서 발레를 인문적 사유의 대상으로 재위치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발레 지식의 수용 방식이 감상과 향유를 넘어 사유와 해석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4. 발레의 아동화: 문화 코드의 재생산과 균열

장르 분석 결과, 어린이 도서가 전체의 27.2%를 차지하며 주요 비중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어린이 장르가 급증한 현상은 발레가 아동 대상 교육 콘텐츠로 적극적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어린이 발레 도서 급증은 유아 발레 교육이 사회적으로 대중화된 흐름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유아무용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무용이 유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뿐 아니라 창의성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혀왔으며(조주희, 2023, p. 238), 특히 발레 교육은 유아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슬기, 허정, 2011)도 다수 축적되어 있다. 또한 유아기의 무용 교육은 다른 시기의 무용 교육에 비해 훨씬 다양한 교육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조주희, 2023, p. 238)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유아 발레 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졌다. 출판 시장에서의 어린이 발레 도서 급증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동시에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어린이 발레 도서의 출판 양상을 살펴보면, 로렌스 안홀트의 『드가와 발레리나 소녀』(2001), 나이아 브레이 모팻의 『Ballet School 발레스쿨』(2004), 안젤라 월크스의 『무대 위의 마법: 발레』(2005) 등 2000년대 초중반부터 번역서를 중심으로 출판이 활발해졌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신원미 『발레하는 할아버지』(2013), 최은영의 『씩씩한 발레리나』(2015), 정지원 『나도 발레리나』(2017) 등 국내 저자의 어린이 발레 도서도 증가하였다. 어린이 발레 도서는 신체 발달과 정서 교육이라는 담론을 통해 발레를 아동기 필수 교육 콘텐츠로 위치시키며, 성장 서사의 매개로 발레를 활용하는 서술 방식을 공유한다.

II장의 제목 키워드 분석은 이러한 어린이 발레 도서의 담론적 경향을 수치로 뒷받침한다. 어린이 장르 70권의 제목에서 ‘발레리나’는 33회 출현하여, 전체 ‘발레리나’ 출현 빈도(57회) 중 57.9%를 차지한다. 이는 발레를 표상하는 가장 지배적인 기표인 ‘발레리나’가 아동 대상 출판물을 통해 집중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꿈·성장’ 키워드(6회) 역시 어린이 장르에서 두드러지며, 발레가 아동기 꿈의 실현과 성장 서사의 매개로 반복적으로 위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에 나타나는 이러한 반복적 키워드는 어린이 발레 도서가 공유하는 서술 문법을 구성한다. 『꿈을 찾은 발레리나』(1995), 『나는 꿈꾸는 발레리나』(2008), 『발레리나가 될 거야!』(2019), 『꿈꾸는 발레 학교』(2025)로 이어지는 제목의 계열은 발레리나가 되고자 하는 ‘꿈’을 아동 주체의 핵심 서사로 반복 제시한다. 이 서사는 직업적 열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우아함, 아름다움, 여성성 등 발레가 수반하는 특정 젠더 규범을 이상화된 아동기 정체성으로 자연화하는 문화적 기제로 기능한다.

특히 어린이 장르에서 번역서 비율이 64%에 달한다는 점은, 이러한 문화 코드가 영미권 및 일본에서 이미 특정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 국내 아동 독자에게 그대로 이식되는 구조적 경로를 보여준다. 번역서를

통해 유입된 ‘발레리나 꿈꾸기’ 서사는 국내 저자의 어린이 도서에서도 반복되며, 이 과정에서 특정 발레 이미지-분홍 튜튜, 토슈즈, 우아한 몸짓-가 아동 문화에서 발레를 표상하는 고정된 시각 기호로 정착하게 된다. 출판물은 이러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발레의 젠더화된 문화 코드를 강화하고, 이를 다음 세대 독자에게 전달하는 매개로 기능하고 있다.

이상의 표본 분석을 위해, 어린이 장르 70권 중 시기별(1990년대~2020년대) 분포와 번역서·국내도서 비율(전체 어린이 장르의 번역서 비율 64%)을 반영한 층화 표본 22권을 선정하고, 온라인 서점에 게재된 책소개·목차·출판사 제공 리뷰를 수집하여 부가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책소개는 앞서 제목 키워드 분석에서 확인된 경향을 한층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우선 발레 교육의 효용을 강조하는 서술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Ballet School 발레스쿨』(나니아 브레이 모팻, 2004)은 발레 동작을 통해 조정 능력, 균형 감각, 유연성, 리듬감, 음악 지능을 함께 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에드가 드가의 발레리나의 비밀』(엘렌 케리, 2016)은 감성 지능과 인성을 발레·미술 감상과 결부시킨다. 『어린이를 위한 교양 발레』(루미너리북스 인문교양 에디팅 팀, 2025)에 이르러서는 신체 발달과 뇌 발달, 집중력과 공간 지각력 향상이라는 보다 정교화된 과학적 언어로 발레 학습의 효용을 서술한다. 이러한 서술은 조주희(2023)와 김슬기, 허정(2011)이 지적한 유아 발레 교육의 발달적 효용 담론이, 학술 연구의 언어를 그대로 차용하며 출판 시장의 마케팅 언어로 전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꿈’의 서사와 시각적 기호로서의 발레 이미지 역시 텍스트 층위에서 재확인된다. 『나는 꿈꾸는 발레리나』(수잔나 데이비슨, 케이티 데인즈, 2008)는 “여자 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꿔 볼만한 발레리나”라는 문구로 발레리나 되기를 여아의 보편적 소망으로 전제하며, 『꿈꾸는 발레 학교』(구에나엘 바루소, 2025)는 세탁소 딸이 프리마 발레리나의 꿈을 이루어 가는 성장 서사를 표제로 내세운다. 『나도 발레리나』(정지원, 2017)의 경우, 튀튀 입히기 놀이와 인형놀이라는 부가 콘텐츠를 통해 발레리나 정체성을 시각적·촉각적 놀이 경험으로 확장하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분홍 튜튜, 토슈즈, 우아한 몸짓’이라는 고정된 시각 기호가 텍스트를 넘어 상품적 형태로도 재생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표본을 통해 새롭게 확인되는 지점은, 이러한 젠더 규범의 재생산이 일방향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2013년 이후 출간된 국내 창작 동화에서는 발레와 젠더 규범 간의 긴장을 서사의 중심 갈등으로 삼는 경향이 나타난다. 『발레하는 할아버지』(신원미, 2013)는 “남자가 무슨 춤을 배우냐”는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몰래 발레를 연습하는 할아버지를 통해, 발레가 남성성과 대립한다는 통념 자체를 서사의 문제로 제기한다. 『씩씩한 발레리나』(최은영, 2015)는 치마보다 추리닝을 선호하고 여성스러움을 강요받기를 거부하는 주인공이 우연히 발레에 빠져드는 과정을 그리며, 발레와 전통적 여성성을 등치시키는 통념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내일도 발레』(오민영, 2021)의 주인공은 비만 체형의 남자아이로, 또래로부터 “살 빼려고 시작한 거냐”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발레리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사도라 문, 발레 공연을 보다』(해리엇 먼캐스터, 2019) 역시 시리즈 전체가 “인종과 국경, 성별을 초월”한 서사를 표방한다.

이 네 편은 공교롭게도 모두 2013년 이후 출간되었으며, 그중 세 편이 국내 저자의 창작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앞서 논의한 번역서 중심의 ‘발레리나 꿈꾸기’ 서사가 아동 문화의 지배적 문법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그 문법에 대한 자기반영적 균열이 국내 창작 동화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어린이 발레 도서 장에서는 젠더화된 문화 코드의 재생산과 그에 대한 저항적 서사가 병존하고 있으며, 후자는 주로 수입된 이미지가 아닌 국내 저자의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

내 발레 출판 담론의 자생적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 발레 도서의 생산 주체를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성인 대상 발레 출판을 주도해 온 세 출판사 중 동글디자인만이 어린이 시장에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본에 포함된 『로열발레단 발레대백과』(리사 마일스, 2018)와 『그림으로 보는 발레대백과』(로라 리, 2021)는 모두 동글디자인이 출간한 영미권 번역서로, 발레 용어와 작품 스토리, 무용수의 이야기를 백과사전 형식으로 정리한 교양서적 성격을 띤다. 이는 동글디자인의 서면 인터뷰에서 밝힌 “명확한 수요”에 기반한 도서 선정 기준이 어린이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인 취미발레 시장을 위한 실용서·에세이 기획과는 구별되는 번역·수입 중심의 별도 기획 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북피움과 플로어웍스는 인터뷰 전 과정에서 어린이 도서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두 출판사가 성인 취미발레인이라는 명확한 독자층을 상정하고 시장에 진입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어린이 발레 도서 시장은 국내 발레 전문 출판사의 성인 취미발레 중심 기획 생태계와는 구조적으로 분리된 채, 번역 수입과 소수 국내 창작동화라는 이원적 경로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

5. 용어 사용의 비표준화와 개념적 손실

발레용어는 태생적으로 프랑스어라는 외국어 어휘 체계를 한글로 옮겨 쓰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기 불일치는 한국 발레 출판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로, 이영애(2013)는 이미 8종의 발레 전문 서적과 선행논문을 대조하여 기본 발레용어 62개 가운데 상당수가 서적마다 서로 다른 한글 표기로 기재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예컨대 attitude는 “아찌쥬드”, “아띠뒤투드”, “아띠뚜드”, “애티튜드”, “에티튜드”, “아티튀드” 등 최소 6가지 표기가, développé는 “데블료페”, “데벨로페”, “데벨로페”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이영애, 2013, p. 149). 이는 본 연구가 검토한 세 출판사의 최근 발레 용어 관련 서적에서도 본질적으로 재현되는 패턴이다.

〈표 4〉 발레 용어 표기 비교 (대표 사례)

원어 (프랑스어)	『발레 용어 핸드북』 (크루아제, 2026, 북피움)	『발레의 용어와 기술』 (서수민, 2024, 우물이 있는집)	『올바른 발레 용어』 (이유라, 이미라, 2021, 플로어웍스)	비고
Plié	플리에	쁠리에	쁠리에	예사소리/된소리 대립
Attitude	아티튀드	애티튜드	아띠뒤투드	모음(아/에)과 자음 강도(티/뛰)의 이중 대립
Développé	데블로페	데벨로페	데블로페	순수 음운 변이
Cabriole	카브리올	카브리올	까브리올	표기 논쟁+오기 중첩
Pointe	포앵트	포인트·뽀앙뜨	뿌앙뜨	프랑스어·영어 혼동

주목할 것은 développé처럼 세 책이 세 가지 표기를 모두 다르게 채택한 사례가 2013년 이영애의 조사에서 지적된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십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표기

비표준화는 특정 시기·특정 출판사의 일탈이 아니라, 발레 출판 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재생산되어 온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표준화는 서로 다른 출판사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본 연구가 검토한 서수민의 『발레의 용어와 기술』(2024)은 단일 저자의 단일 저서임에도 불구하고 *pointe*라는 하나의 용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V장은 영어식 표기를 따라 “*Pointe Works*(포인트 워크)”로 되어 있는 반면, 같은 장 9번 항목의 “*Temps Levé sur la Pointe*”는 프랑스어 원음에 가까운 “땅 르베 썬 라 뽕앙뜨”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한 권의 책, 심지어 한 개의 장(章) 안에서조차 동일 용어의 표기가 통일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발레용어의 비표준화가 출판사 간 편차의 문제를 넘어 개별 저술 내부의 편집 과정에서도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구조적 현상임을 시사한다.

한편 플로어웍스 계열 서적은 이 문제에 대해 암묵적 혼용이 아닌 명시적 편집 방침으로 대응한 사례에 해당한다. 해당 시리즈는 일러두기에서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과 원어 발음의 차이가 큰 경우 국내에서 통용되는 발음과 표기에 가깝게 절충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올바른 발레 용어』의 경우 원어의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를 하다 보니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사용을 금하고 있는 ‘ㅼ, ㅽ, ㅿ’와 같은 된소리 발음들이 개인적으로 프랑스어 발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 매력이라고 생각하기에 장고 끝에 거침없이 된소리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힌다(이유라, 이미라, 2021, p. 54). 이러한 원음주의 방침은 *cabriole* 표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해당 서적은 “가브리올”이라는 널리 통용되는 표기가 실제로는 오기임을 지적하며, 그 원인을 영어식 발음 지식의 개입에서 찾는다. 프랑스어 *c*는 영어의 *c*와 마찬가지로 ‘ㅅ’과 ‘ㅋ’에 가깝게 발음되는 두 경우가 있으나, ‘ㅋ’로 발음되는 경우 프랑스어 *c*는 영어보다 ‘ㅿ’에 훨씬 가까운데도 “한국어 지식과 영어 지식이 개입돼 철자를 예상하기 힘든 단어들”에서 이 원칙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cabriole*의 원어에 가까운 발음을 [까브리올], 나아가 더 타협하지 않은 발음을 [까브히올]로 제시하면서도, 학습자의 실행 부담을 고려해 발레 프랑스어에서는 까브리올만 알면 충분하다고 절충안을 명시한다(이유라, 이미라, 2021, p. 35). 이는 원음주의를 취하는 서적조차 원어 발음을 무한정 요구하지는 않으며, 통용 오기가 발생하는 기제(영어식 발음 지식의 무의식적 적용)를 인지한 위에서 절충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영애(2013)가 제기했던 ‘현행표기법’과 ‘원음주의’ 사이의 논쟁이, 십여 년이 지난 현재 실제 출판 시장에서 북피움(표준표기법 준수)과 플로어웍스(원음 절충) 양쪽으로 나뉘어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바른 발레 용어』는 이러한 혼란을 학습자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증언하기도 한다. “안아방”, “안아? 안아보라고?”, “앙바? 암바? 이건 레슬링 용어 같은데?”라며 “귀에 들리는 발음에 나만의 해석을 마구 덧 붙이는 식으로 무조건 외웠다”는 서술(이유라, 이미라, 2021, p. 16)은, 표준화되지 않은 발음 표기가 학습자에게 도달할 때 얼마나 자의적인 청취와 추측을 거쳐 재구성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는 노은초(2016)가 지적한 “동작을 그냥 생각 없이 기계처럼 보고 따라 하는 방식”의 학습, 즉 어원과 의미에 대한 이해 없이 형태만 모방하는 학습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뒷받침하는 1인칭 증언에 해당한다. 또한 발레 용어의 ‘포인트’는 앞서 자랑스럽게 외친 ‘point’가 아니더라도 영어식 이해와 프랑스어 원어 사이의 혼동을 짚는 서술(이유라, 이미라, 2021, pp. 22-23)은, 앞서 서수민(2024)의 목차에서 확인한 *pointe*/포인트 표기 혼용이 저자의 편집상 실수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 대다수가 실제로 거쳐 가는 보편적 혼동의 지점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표기 불일치가 단순히 미관상, 혹은 편의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은 노은초(2016)의 연구에서 뒷받침된다. 노은초는 무용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발레 동작명의 어원과 의미를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들이 동작을 그냥 생각 없이 기계처럼 보고 따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동작의 숨은 뜻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게 되니까 집중도가 높아졌으며 동작 의미를 알고 있으니 내가 동작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만들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노은초, 2016, p. 245). 이는 발레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동작 습득의 정확성뿐 아니라 학습자의 창의적 신체 표현 능력과도 직결됨을 시사한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동작명이 책마다 다르게 표기되어 학습자가 어원과 의미를 일관되게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은 노은초가 확인한 학습 효과의 전제 조건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은 표기 불일치를 단순한 음운론적 변이의 문제로 좁혀 보아서는 안 된다. 번역·차용 과정에서 원어 개념의 특정 요소인 절차, 방향, 목적·기능, 힘의 질감 등이 강조되거나 생략되거나 다른 범주로 이동한다는 지적(허서명, 2026, p. 376)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각기 다른 층위의 개념 손실을 내포한다. 예사소리(플리에·파 드 샤)와 된소리(블리에·빠 드 샤) 표기 차이가 학습자에게 서로 다른 청각적·감각적 인상을 제공할 가능성 또한 이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표기상의 차이가 실제 동작 수행에서 근육 사용의 질감 차이로 이어지는지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cabriole의 경우는 문제가 한 겹 더 복잡하다. 라틴어 어원상 ‘노루’에서 비롯된 이 동작명은 노루가 도약하며 공중에서 다리를 부딪는 습성을 형상화한 것인데(노은초, 2016, p. 240), 통용되는 표기 ‘가브리올’은 원어 c의 음가가 아닌 영어식 발음 규칙이 대신 적용된 결과로, 이 과정에서 노루의 도약이라는 어원적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발음상의 단서 자체가 소실된다. “카브리올”(서수민, 2024), “가브리올”(통용 오기), “까브리올”(플로 어웍스 제안)이라는 세 표기가 공존하는 상황은 단순한 표기 차이를 넘어, 어느 경로를 통해 이 용어에 도달하느냐에 따라 원어의 어원적 맥락에 접근하는 단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표기의 차이가 학습자의 동작 이해와 상징적 이미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가적인 실증 연구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 손실의 문제는 출판 현장의 시각과 미묘하게 어긋난다.

“그동안 학술적 도서는 주로 논문을 참고하여 전문용어 표기를 점검해 왔고 번역의 경우 출판·번역 전문가가 주로 해 왔으나 머지않은 미래에 이 모든 것을 AI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동글디자인 인터뷰 中)

이는 번역 도구의 발전이 표기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보여주는 진솔로, 출판 실무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검토한 학술적 논의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바라본다. 표기 불일치의 핵심은 정확한 한글 표기 하나를 찾아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의 원어 개념이 여러 표기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개념의 어떤 속성을 남기고 어떤 속성을 털어낼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데 있다. 정확성을 높이는 기술은 이 합의의 부재 자체를 해소해주지는 못한다. 다만 이상에서 살펴본 예사소리·된소리 표기 차이와 근육의 힘의 질감, 혹은 cabriole 표기와 노루의 도약이라는 어원적 이미지 간의 연결은 본 연구가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라기보다, 비표준화된 표기가 초래할 수 있는 개념적 손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론적 해석에 해당한다. 요컨대 발레용어의 비표준화는 10여 년 전부터 지적되어온, 그러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이며, 그 해결은 단일한 한글 표기를 정

하는 기술적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원어 개념이 담고 있는 절차·방향·힘의 질감을 어느 만큼 보존할 것인가를 합의하는 개념적 문제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62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발행된 국내 발레 단행본 257권을 대상으로 출판 동향을 기술 통계에 기반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 내재된 담론적 특성을 다섯 가지 층위에서 해석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발레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해 왔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II장의 분석 결과, 국내 발레 단행본의 출판은 1960~80년대 예술인문 장르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계몽적 텍스트에서 출발하여, 2000년대 이후 어린이·실용취미·에세이 장르가 순차적으로 급증하며 양적·질적으로 팽창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장르 분포의 변화는 발레라는 지식의 소비 주체가 전문 예술 담론의 수용자에서 아동 독자, 나아가 성인 취미 실천자로 확장되어 왔음을 수치로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변화만으로는 각 장르 내부에서 지식이 실제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예컨대 저자층이 왜,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서술 방식이 왜 비선형화되었는지와 같은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양적 변화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다섯 가지 담론적 기제, 지식 생산 주체의 탈전문화, 서술 방식의 탈선형화, 지식 형식의 혼종화, 독자층의 아동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기저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용어 체계의 비표준화를 문헌 분석과 세 출판사(동글디자인, 북피움, 플로어웍스)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 사회에서 발레는 무대 위에서 완결되는 전문 공연예술로만 읽히지 않는다. 발레는 몸을 통해 실천되는 라이프스타일로, 아동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 콘텐츠로, 인접 학문과 접촉하며 재구성되는 인문교양의 대상으로, 그리고 여전히 표준화되지 않은 언어를 통해 불완전하게 번역되고 있는 지식 체계로 동시에 존재한다. 즉 한국 사회에서 발레를 읽는다는 것은 독자층과 매체, 시대적 맥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복수의 독법(讀法)이 경합하고 공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국내 발레 단행본 출판의 역사는 발레라는 하나의 예술이 그것을 읽는 주체와 시대에 따라 매번 다시 씌어지는 텍스트였음을 증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발레를 읽어온 지난 60여 년은, 발레를 이해해 온 역사라기보다 발레를 통해 한국 사회가 스스로의 문화적 열망과 균열을 거듭 써 내려간 역사에 가깝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한국 발레 지식 체계가 지닌 구조적 한계 역시 드러낸다. 발레 지식의 대중적 확산이 급속히 진행되어 온 것과 달리, 그 지식을 전달하는 언어 체계는 여전히 출판사·저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반세기 전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발레 지식이 양적으로는 팽창하였으나, 그 지식을 안정적으로 축적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어린이 발레 도서 시장이 성인 취미발레 출판 생태계와 구조적으로 분리된 채 주로 번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국내 발레 담론이 자생적으로 아동 독자를 위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257권에 이르는 국내

발레 단행본을 망라적으로 수집·분류함으로써 발레 지식 생산의 역사적 지형도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둘째, 계량적 서지 분석과 질적 담론 분석, 그리고 출판 현장의 서면 인터뷰를 결합한 혼합 연구방법을 통해 출판 동향과 담론 변화 간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단행본이라는 매체를 무용학 연구의 분석 단위로 적극적으로 채택함으로써, 공연·교육·치료 중심으로 편중되어 온 기존 무용학 연구의 방법론적 외연을 확장하는 선례를 제공하였다.

향후 출판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요청된다. 우선, 실용취미·에세이 장르에서 확인된 국내 저자의 저술 역량이 예술인문 장르, 특히 발레 이론과 역사를 다루는 학술적 교양서로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 북피움 담당자가 지적한 것처럼 “동작 습득을 넘어 발레의 역사와 미학적 배경을 다루는 인문학적 교양서”에 대한 수요는 이미 확인되었으나, 이를 충족할 국내 저자군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또한 일부 출판 현장에서 제안되고 있는 전자책 우선 출간 방식으로의 전환은 발레 출판의 미래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하다. 플로어웍스는 2026년 6월 자사 저자들을 대상으로 종이책 중심의 출간 관행에서 벗어나 전자책을 먼저 선보인 뒤 독자 반응에 따라 종이책, 한정판, 오디오북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출간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였으며, 그 세 가지 시리즈 방향 중 하나로 발레·예술·몸을 주제로 한 “더 발레 클래스 digital”을 설정한 바 있다(플로어웍스, 2026). 이는 본 연구의 분석 시점 이후에 제시된 자료로, 257권의 분석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최근 출판 현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보조자료로만 활용하였다. 이러한 전환 제안은 본 연구 II장 5절에서 확인된 최근 출판물의 ebook 비중 증가 추세가 향후 출판사 차원의 출간 방식 변화와 맞물릴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전환은 발레 지식의 유통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자책이 지닌 수정·업데이트의 용이성을 활용하여 III장 5절에서 확인된 발레 용어 비표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종이책에서는 일단 확정되면 정정이 어려운 표기 문제가, 전자책 환경에서는 수정과 업데이트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보완될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가 채택한 분석틀은 발레 이외의 타 무용 장르나 인접 예술 영역(클래식 음악, 현대무용 등)의 단행본 연구에도 적용 가능한 만큼, 장르 간 비교 연구를 통해 예술 지식의 대중화 양상이 장르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서지 정보와 텍스트 분석에 기반한 생산자·매체 중심의 연구인 만큼, 실제 독자의 수용 방식을 조사하는 독자 연구가 병행된다면 발레 담론의 순환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린이 발레 도서에서 확인된 젠더 규범의 재생산과 균열 현상은 아동문학 및 젠더 연구의 시각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로, 후속 연구를 통해 확장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구에나엘 바루소(2025). **꿈꾸는 발레 학교** (김자연 역). 그린애플. (원저출판 2018).
- 김주혜(2025). **밤새들의 도시** (김보람 역). 다산북스. (원저출판 2024).
- 김지현(2021). **발레 음악 산책**. 플로어웍스.
- 나이아 브레이 모팻(2004). **Ballet School: 발레스쿨** (프뢰벨교육연구소 역). 프뢰벨행복나누기. (원저출판 2003).
- 노영재(2024). **발레 너머 예술: 발레, 예술, 문화를 향한 비평적 시선**. 현북스.
- 로라 리(2021). **그림으로 보는 발레대백과** (이윤정 역). 동글디자인. (원저출판 2007).
- 로렌스 안홀트(2001). **드가와 발레리나 소녀** (이복희 역). 웅진주니어. (원저출판 1996).
- 루미너리북스 인문교양 에디팅 팀(2025). **어린이를 위한 교양 발레**. 루미너리북스.
- 리사 마일스(2018). **로열발레단 발레대백과** (소슬기 역). 동글디자인. (원저출판 2014).
- 리춘신(2009). **마오쩌둥의 마지막 댄스 - 중국 시골 소년 발레로 세계를 누비다** (이은선 역). 민음사. (원저출판 2003).
- 마라-프랑수아즈 크리스투(1989). **발레의 역사** (조병옥 역). 탐구당. (원저출판 1966).
- 바슬라브 니진스키(2002). **니진스키, 영혼의 절규** (이덕희 역). 푸른숲. (원저출판 1996).
- 배진수(2022). **물리에 뿌리에**. 플로어웍스.
- 버나드, E.(1995). **꿈을 찾는 발레리나** (박선희 역). 문공사. (원저출판 1987).
- 서수민(2024). **발레의 용어와 기술**. 우물이 있는집.
- 송혜경(1963). **第三의 青春: 젊은 발레리나의 手記**. 한일출판사.
- 수잔나 데이비스, 케이티 데인즈(2008). **나는 꿈꾸는 발레리나** (문지숙 역). 큰나. (원저출판 2004).
- 신예리(2024). **발레를 배우며 생각한 것들: 33년 차 저널리스트, 우아하고도 단단하게 인생을 건너다**. 웅진지식하우스.
- 신원미(2013). **발레하는 할아버지**. 머스트비.
- 신지 가토(2019). **발레리나가 될 거야** (윤수정 역). 책읽는 곰. (원저출판 2017).
- 안젤라 월크스(2005). **무대 위의 마법: 발레** (김채현 역). 시공주니어. (원저출판 2000).
- 엘렌 케리(2016). **에드가 드가의 발레리나의 비밀** (김혜영 역). 형설아이. (원저출판 2011).
- 오민영(2021). **내일도 발레**. 별숲.
- 온다 리쿠(2025). **스프링** (이지수 역). 레이하우스. (원저출판 2024).
- 윤지영(2016). **어쩌다 마주친 발레: 우연히 만난 인생의 행복한 동반자**. 스타일북스.
- 이수경(2026). **오늘도 수강생들은 발레를 하며 귀엽게 좌절합니다: 발레 마스터 이수경의 우아하고 유쾌한 성인 발레 관찰 에세이**. 하움출판사.
- 이유라, 이미라(2021). **올바른 발레 용어**. 플로어웍스.
- 이은경(2001). **발레 이야기: 천상의 언어, 그 탄생에서 오늘까지**. 열화당.
- 임을파(1962). **발레**. 범문사.

- 임이랑(2022). *시바리나의 발레일기 - 취미 발레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핵공감 그림에세이*. 시대인.
- 장광열(2004). *당신의 발에 입 맞추고 싶습니다 - 세기의 발레리나 강수진 라이프 스토리*. 동아일보사.
- 정옥희(2020). *이 춤의 운명은: 살아남은 작품들의 생애사*. 열화당.
- 정옥희(2021). *나는 어쩌다 그만두지 않았을까*. 엘도라도.
- 정옥희(2022). *진화하는 발레 클래스*. 플로어웍스.
- 정지원(2017). *나도 발레리나*. 이화.
- 정한아(2022). *튜튜, 욕망을 입다: 발레 의상에 관한 거의 모든 것*. 플로어웍스.
- 최은영(2015). *썩썩한 발레리나*. 좋은책어린이.
- 크루아제(2026). *발레 용어 핸드북* (위정훈 역). 북피움. (원저출판 2009).
- 해리엇 먼캐스터(2019). *이사도라 문, 발레 공연을 보다* (심연희 역). 을파소. (원저출판 2016).
- 홍정희(1969). *발레 용어소사전(用語小辭典)*. 새글사.
- Baker, D. P., & LeTendre, G. K. (2005). *National differences, global similarities: World culture and the future of schooling*. Stanford University Press.
- Featherstone, M.(1990). Perspectives on consumer culture. *Sociology*, 24(1), 5-22.
- Featherstone, M.(1991). *Consumer Culture and Postmodernism*. Sage.
- Featherstone, M.(1992). *Postmodernism and the aestheticization of everyday life*. In S. Lash & J. Friedman(Eds.) *Modernity and Identity*(pp. 265-290). Blackwell.
- Rizvi, F., & Lingard, B. (2010). *Globalizing education policy*. Routledge.
- 김보름(2018). *예술 장에서의 아마추어 예술가: 일상의 예술 실천과 상징투쟁*.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슬기, 허정(2011). 발레교육이 유아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체육연구*, 7(1), 61-72.
- 김영환(2025). 한국에서 출간된 핀란드 관련 단행본 동향 분석.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5(1), 43-63.
- 노은초(2016). 어원 및 의미 접근법을 활용한 효율적 발레수업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4(1), 239-249.
- 박재홍(2005). 취미 발레수업 참여자의 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43, 163-174.
- 박은혜(2018a). 부르디외 문화생산의 장이론으로 본 한국발레장의 역사성: 1950년대 이후 신문기사의 양적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회지*, 51, 99-123.
- 박은혜(2018b). 한국사회에서 예술의 경계짓기에 대한 탐색: 1920~1940년대 발레 사례연구. *무용예술학연구*, 69(2), 15-32.
- 유화정(2017). 한국무용사 관련 단행본의 출판 현황 및 특징.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8(3), 199-217.
- 이영애(2013). 발레 수강생을 위한 발레용어 표기분석에 관한 제언. *무용역사기록학회지*, 30, 137-155.
- 조주희(2023). 국내 유아무용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예술연구*, 39, 235-257.
- 허가영(2019). *성인발레교육 경험이 여성 학습자의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허서명(2026). 발레 용어 번역과 차용 표현이 학습자의 주의 초점과 오류 수정에 미치는 영향. **대한 무용학회논문집**, 84, 367-383.

서울시발레단(2026. 3.). **더블빌 <블리스&재키> 공연프로그램북**.

플로어웍스·마인드웍스(2026. 6.). **저자 대상 배포자료**.

논문투고일 2026. 07. 30.
심 사 일 2026. 08. 15.
심사완료일 2026. 09. 20.

How Is Ballet Read in Korean Society?

– Changes in Publishing and Discourse As Seen through Domestic Ballet Monographs –

Han, Jiyoung

Lecture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257 domestic ballet monographs published between 1962 and March 2026, combining bibliographic analysis, title keyword frequency analysis, and written interviews with three publishers to trace how ballet has been produced and consumed as knowledge. Chapter II offers a quantitative overview of publication trends by period, genre, translation ratio, and publisher, showing marked expansion since the 2010s in the essay, practical/hobby, and children's genres. Building on these findings, Chapter III identifies five interrelated discursive shifts: de-professionalization of authorship as amateur practitioners become writers; de-linearization of narrative from chronological history to thematic structures; hybridization of genre across humanities, science, and literature; "childification" of readership through the reproduction—and occasional contestation—of gendered cultural codes; and the persistent non-standardization of Korean ballet terminology. Together, these findings show that ballet in Korea has moved beyond professional performance discourse into a plural, actively reconstructed field of everyday cultural meaning.

Keywords: Ballet Monograph(발레 단행본), Publishing Discourse Analysis(출판 담론 분석), De-professionalization(탈전문화), Genre Hybridization(장르 혼종화), Terminology Standardization(용어 표준화)